

Daily Auto Check

2021. 5. 26(Wed)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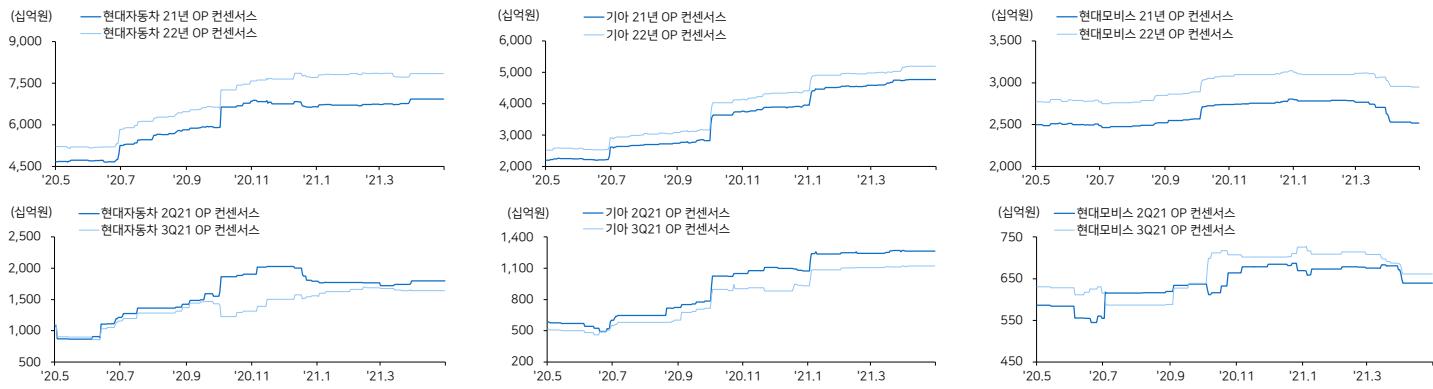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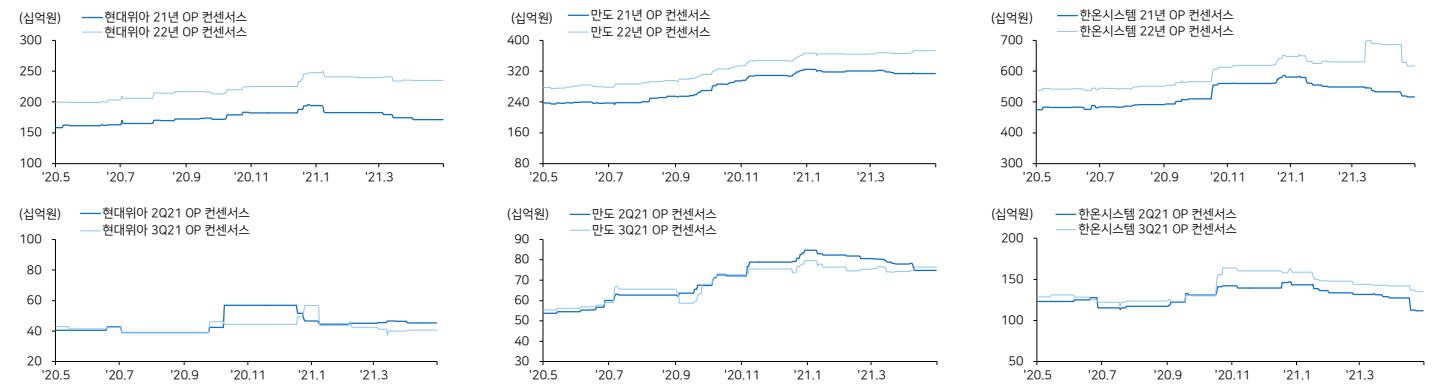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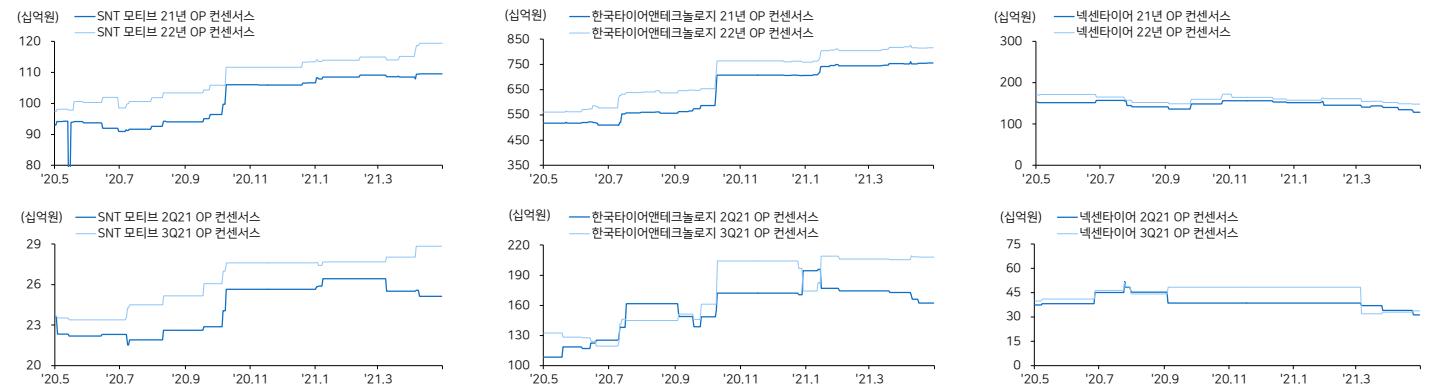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LG, 현대차와 '1.3조 합작투자'로 印尼 배터리 공장 짓는다 (중앙일보)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배터리 합작법인(UJV) 관련 MOU를 체결할 전망. 자카르타에서 약 50km 거리인 카라왕 지역에 연간 CAPA 약 10Gwh의 배터리 공장을 풀 1조 3천억 원대를 투자해 세울 계획.
<https://bit.ly/3fl29xf>

현대차, 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美·유럽 판 키운다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가 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을 출시하고, 연내 유럽과 미국 등 솔루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총 140대가 스위스로 선적될 예정이며, '25년까지 총 1,600대를 스위스에 공급할 계획.
<https://bit.ly/3hMnuZ4>

美, 타이어3사 반덤핑 관세 확정...한국타이어 11%P 낮아져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예비판정 보다 관세율이 11%포인트 가량 낮아진 27.05%로 정해졌고, 넥센타이어는 예비 관세율 14.24%에서 14.72%로 소폭 높아짐.
<https://bit.ly/25rb2bY>

'반도체 부족' 폴크스바겐 中 생산 30% 줄인다 (조선비즈)

VW FAW 합작사는 반도체 부족으로 2분기 34% (기존 생산목표 61만 대 → 40만 대) 감산키로 함. VW FAW는 중국 내 5개의 생산시설에서 VW, 아우디, 제타 브랜드의 자동차를 제조하며, 총 29개 모델의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yxrTVL>

팰리세이드 주고 코발트 받고?...현대차의 콩고 전략 (한국경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요 증가로 코발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현대차가 코발트 최대 생산국인 콩고 정부에 SUV 팰리세이드 500대를 공급함. EV 배터리소재 확보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의미있는 수출 계약이라는 해석이 등장.
<https://bit.ly/34f3vdl>

印 코로나 사태 한국 기업으로 불똥...현대차 5일간 가동 중단"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남부 타밀나두주 현대차 공장이 코로나19 여파로 25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공장 가동을 점검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날 보도함. 관계자는 "2명의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뒤 다른 근로자들이 불안감을 표시했다"고 언급.
<https://bit.ly/3hS5nNy>

Tesla Model 3, Model Y builds in May 2021 will no longer equip radar (Teslarati)

Tesla는 '21년 5 월 배송을 시작으로 북미에서 Model 3 또는 Y 차량에 레이더를 더이상 장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이들은 Autopilot, FSD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카메라와 신경망(Neural Net)에 의존하는 최초의 모델이 될 것.
<https://bit.ly/2RKRN8Q>

풀러스·中FAW, 자율주행 트럭 하반기 양산...연간 30만대 (THE GURU)

미국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풀러스가 중국 제일자동차그룹(FAW)과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트럭을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함. 연간 3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양사는 이미 중국에서 성능과 안전성 인증을 획득함.
<https://bit.ly/3yBszQ5>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설득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